

20대 여성의 신체 만족도 및 이상형(理想型)에 관한 연구

정재은 · 남윤자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1. 서론

의복은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에 잘 맞고 심리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植竹 등(1989)은 인간관계와 사회구조가 복잡하게 서로 얽혀 이루어진 현대사회에서는 의복에 대한 욕구는 다면적이고 모든 기능을 동시에 갖는 것이 요구되어진다고 하였고 정삼호(1988)는 성인여성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체형변화를 의복으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의복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복 착용자가 의복을 통해 얻는 심리적 만족도는 신체적 만족도와 관련되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체적 만족도는 체형과 관련되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정재은, 1992). 이에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 및 체형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옥연(1984), 植竹(1988), Labat·Delong(1990), 김용숙(1990), Shim(1991), 구자명·이명희(1994), 고애란·김양진(1996) 등은 신체 만족도와 의복행동간에 관련이 있음을 밝혔으며, 임숙자(1986), 김양진·강혜원(1992)은 신체의 결함을 의복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김정숙(1984)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복을 선택하므로써 안정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Douty·Brannon(1984)은 여성은 마른 것을 선호한다고 하였고 Clayton 등(1987)은 의복착용자의 체형에 따라 의복 유행성 지각이 다를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심리학적 입장에서 행하여진 연구로 신체의 종합적인 만족도, 선호를 취급하고 있을 뿐 신체 각 부위의 만족도나 선호에 관한 자세한 고찰을 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도 및 실제 체형과의 비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인식도 및 실제 신체 측정치와 만족도와의 관계 및 이상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체에 대한 이상형은 시대의 여러 여건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의복 착용자가 의복을 통해서 표현하고자하는 이상형의 시대적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이상형(理想型)에 대한 설문지 조사와 신체 측정을 통하여 신체 크기에 대한 만족도를 객관적인 척도로 고찰하고, 이상형과 실제 체형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1992년도 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시대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이상형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한 의복원형 제작 및 의복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의복의 맞춤새가 좋을뿐만 아니라 의복착용자들에게 심리적 만족을 줄 수 있는 의복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자료는 18세에서 25세의 여성 195명을 대상으로 1997년 4월에서 8월까지 실시한 신체 측정자료와 설문지 조사자료이다. 시대에 따른 비교자료는 18세에서 25세의 여성 195명을 대상으로 1992년 5월에서 6월에 실시한 신체 측정자료와 설문지 조사자료이다.

2.2. 연구항목 및 측정방법

설문지는 자신의 체형에 관한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한 49항목(5점척도)과 자신이 이상적(理想的)으로 인식하는 신체치수 조사를 위한 5항목(치수기입), 신체의 수척/비만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위한 3항목(5점척도)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에 선정한 항목은 성인 여성의 체형과악과 의복구성에 필요한 항목으로서 높이 3항목, 둘레 12항목, 길이 8항목, 피하지방두께 2항목, 몸무게 1항목 등 총 26항목이었다. 신체 측정방법은 R. Martin의 인체 측정방법과 공업진흥청의 KS A 7003(인체측정용어) 및 KS A 7004(인체측정방법)에 설정된 측정기준선과 기준점에 준하였다.

2.3. 분석방법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도 및 실제 신체 측정치와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전신, 상반신, 하반신의 수척/비만에 대한 인식도를 고찰하기 위해 평균 및 상호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각 피험자의 신체 크기에 대한 이상치와 실제 신체 측정치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한, 1992년도 신체 측정자료/설문지자료와 본 연구의 자료를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

차 분석 및 두 집단간의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신체 만족도에 관한 고찰

3.1.1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도 및 실제 신체 측정치와 만족도와의 관계

(1)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와의 관계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의 평점 평균 및 상호간의 상관계수를 <표 3>에 나타내었다.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도 항목에서는 '작다, 가늘다, 짧다' 라는 크기가 작다는 인식을 갖는 경우에 5점척도 중 1점을 부여하고 반대로 '크다, 굵다, 길다' 라는 크기가 크다는 인식을 갖는 경우에 5점척도 중 5점을 부여하였다. 평균이 대체로 2.5과 3.5사이에 분포하고 있어서 신체 각 부위의 크기를 보통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엉덩이둘레, 넓적다리둘레, 장딴지둘레 등 신체 부위의 굵기를 나타내는 몇 항목의 평균이 3.5이상으로, 허리 아래 하반신의 굵기에 관해서는 굵다고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 항목에서는, 불만족에 1점, 만족에 5점을 부여하였다. 손목둘레, 팔길이를 제외하고 모두 3이하(1.69~2.99)의 값을 나타내는 것은 대부분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굵다고 평가한 엉덩이둘레, 넓적다리둘레, 장딴지둘레에서 1.96이하의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부위에 대해 강한 불만족을 나타내었다.

신체의 굵기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와의 관계를 보면 가슴둘레를 제외하고는 부적(負的)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작다, 가볍다 등 작은 것에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호가 다르게 정적(正的) 상관을 나타내는 가슴둘레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분할표분석을 한 결과, 가슴둘레의 경우는 다른 둘레항목과는 달리 작은 경우와 큰 경우 모두에서 불만족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신체의 길이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와의 관계를 보면, 키가 크고 사지가 길고 몸통은 짧으며, 머리와 손, 발이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신체의 굵기에 대한 인식이 신체의 길이에 대한 인식보다 만족도와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2) 신체 각 부위의 실제 신체 측정치와 만족도와의 관계

만족도 조사 항목 중 신체 측정을 실시한 15항목에 대해 실제 신체 측정치와 만족도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표 1>. 신체의 굵기에 대한 항목을 보면 가슴둘레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서 신체가 마르고 몸무게가 가벼운 것에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들 항목에서 만족도는 실제 신체 측정치보다는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도와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신체의 길이에 대한 항목을 보면, 키에서는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등길이, 엉덩이길이 항목에서는 상관이 극히 낮게 나타나 이 부위에 대한 만족도는 실제 신체 측정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신체 각 부위의 실제 신체 측정치와 만족도와의 상관계수

| 신체부위 | 상관계수 | 신체부위 | 상관계수 | 신체부위 | 상관계수 |
|-------|--------|--------|--------|------|--------|
| 가슴둘레 | 0.002 | 어깨너비 | -0.233 | 발목둘레 | -0.353 |
| 허리둘레 | -0.442 | 위팔둘레 | -0.462 | 팔길이 | 0.208 |
| 엉덩이둘레 | -0.335 | 손목둘레 | -0.355 | 다리길이 | 0.439 |
| 등길이 | -0.084 | 넓적다리둘레 | -0.382 | 키 | 0.655 |
| 엉덩이길이 | 0.037 | 장딴지둘레 | -0.388 | 몸무게 | -0.462 |

3.1.2 각 피험자의 신체에 대한 이상치(理想值)와 실제 신체 측정치와의 관계

각 피험자의 신체 크기에 대한 이상치와 실제 신체 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4>에 나타내었다. 개인의 키, 가슴둘레에 대한 이상치의 평균은 실제 신체 측정치의 평균보다 크게 나타났고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몸무게에 대한 이상치의 평균은 실제 신체 측정치의 평균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것은 앞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신체 굵기 중 가슴둘레를 제외한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는 작기를 원하고, 몸무게는 가볍기를, 키는 크기를 원하였다.

3.1.3 신체의 수척/비만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와의 관계

신체를 전신, 상반신, 하반신으로 분류하고 이들간의 수척과 비만에 대한 인식도의 평균, 표준편차를 <표 5>에 나타내었다. 이때 '말랐다'에 1점을 '뚱뚱하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전신과 상반신보다는 하반신에 대하여 뚱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신, 상반신, 하반신의 수척/비만에 대해 형성하는 인식 각각에 대한 피험자군의 신체 만족도 평균을 <표 6>에 나타내었다. 전신, 하반신에서는 '말랐다'고 평가한 경우에 가장 만족하였고 '뚱뚱하다'라고 평가한 경우에 가장 불만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상반신에서는 '약간 말랐다'고 평가한 경우에 가장 만족하였고 '뚱뚱하다'라고 평가한 경우에 가장 불만족을 나타내었다. 이는 상반신보다는 하반신에 대해 더 마르기를 원함을 나타낸다.

3.2. 본 연구자료와 1992년도 조사자료와의 비교분석

3.2.1 신체 신체 측정자료에 대한 비교분석

본 연구집단과 1992년도 집단과의 비교를 위하여 1992년 신체 측정집단(A집단)과 1997년 신체 측정집단(B집단) 간의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두 집단 각각의 신체 신체 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t-test 결과는 <표 2>에 있다. 두 집단의 신체 신체 측정치를 비교해 보면, 윗팔둘레, 최소발목둘레, 등길이, 소매길이, 머리길이의 항목에서 B집단의 신체 측정치가 A집단의 신체 측정치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고, 머리둘레, 목밑둘레, 진동둘레, 손목둘레, 장딴지둘레, 어깨끝점사이길이, 상완피하지방 두께에서 A집단의 신체 측정치가 B집단의 신체 측정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20대 여성의 5년간의 신체 신체 측정치 변화를 살펴보면, 윗팔, 최소발목둘레는 굵어졌으며 등길이, 소매길이가 길어진 반면, 머리둘레, 진동둘레, 장딴지둘레는 작아지고 어깨가 좁아졌다. 그러나, 의복설계상 중요한 항목인 키, 가슴둘레, 밑가슴둘레, 뒤통, 앞뚱,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앞뒤뒬위길이, 넓적다리둘레의 항목과 몸무게에서는 두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이들 주요 신체항목에서 5년 정도의 연도 차이에서는 신체 치수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나타낸다.

3.2.2 설문지자료에 대한 비교분석

1992년도 조사집단(A집단)과 1997년도 조사집단(B집단) 간의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의 평균과 t-test 결과 및 서로간의 상관계수를 <표 3>에 나타내었다. 두 집단의 신체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평균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대체로 신체 각 부위의 크기를 보통이라 인식하고 있으나, 허리 아래 하반신의 굵기에 관해서는 굵다고 평가하고 이들 신체부위에 대하여 강한 불만족을 나타내었다. 또한, 두 집단간에 상관의 정도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그 경향은 같다. 상관계수에서 두 집단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어깨너비, 다리길이를 B집단이 A집단에 비하여 이들 항목에 대하여 만족도와 인식도간에 더 큰 관련성을 가진다. 또한, 신체에 대한 인식의 비교에서는 키와 발크기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신체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B집단이 A집단보다 목, 윗팔둘레, 아래팔둘레, 손목둘레, 넓적다리둘레, 장딴지둘레, 발목둘레, 몸통둘레, 키, 몸무게의 항목에서 유의하게 불만족하였다. 이는 B집단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의 기준이 A집단에 비하여 변화하였음을 나타낸다. 특히, 키의 경우는 실제 신체 측정치 상으로는 두 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나, 인식면에서는 B집단이 A집단보다 유의하게 작게 인식하였고 이에 대하여 큰 불만족을 나타내었다. 표 2, 3을 살펴보면, B집단(1997년도 조사집단)이 A집단(1992년도 조사집단)에 비하여 키가 더 크고 몸무게가 더 가벼우며, 머리둘레와 사지의 둘레가 더 가늘며 어깨가 좁은 것에 만족함을 알 수 있다.

1992년도 조사집단(A집단)과 1997년도 조사집단(B집단)의 신체 이상(理想)치수 평균 및 표준편차, t-test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B집단이 A집단에 비하여, 키와 허리둘레의 이상치는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가슴둘레의 이상치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1992년에 비하여 최근의 이상형(理想型)은 가슴이 크고 허리가 짙은 체형보다는 좀더 키가 크고 슬림(slim)한 체형임을 알 수 있다.

1992년도 조사집단(A집단)과 1997년도 조사집단(B집단) 간의 신체의 수척/비만에 대한 인식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t-test 결과는 <표 5>에 있다. B집단이 전신, 상반신,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 모두에서 B집단보다 더 뚱뚱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상반신에 대하여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전신의 수척/비만에 대해 형성하는 인식 각각에 대한 피험자군의 신체 만족도 평균<표 6>을 살펴보면 A집단은 '약간 말랐다', '보통이다' '말랐다'의 순으로 높은 만족도 점수를 보인 반면, B집단에서는 '말랐다'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를 보이고 '약간 말랐다' '보통이다'의 순으로 높은 만족도 점수를

나타내었다. 상반신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를 보인 집단이 '약간 말랐다'로 두 집단이 같으나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보인 집단은 A집단에서는 '보통이다'였고, B집단에서는 '말랐다'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B집단(1997년도 조사집단)이 A집단(1992년도 조사집단)보다 자신의 신체를 더 말랐다고 생각할 때에 더 큰 만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2> 두 집단 각각의 신체 신체 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t-test 결과

| 계측부위 | A집단 ¹⁾ (n=195) | | B집단 ²⁾ (n=541) | | t 값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키 | 160.01 | 5.04 | 159.93 | 4.80 | 0.203 |
| 목뒤높이 | 135.11 | 4.56 | 135.77 | 4.44 | -1.670 |
| 허리뒤높이 | 97.91 | 3.83 | 97.32 | 3.86 | 1.822 |
| 머리둘레 | 55.89 | 1.30 | 55.48 | 1.40 | 3.544*** |
| 목밑둘레 | 38.05 | 2.12 | 38.09 | 1.86 | -0.290 |
| 가슴둘레 | 81.13 | 4.80 | 81.87 | 5.30 | -1.701 |
| 밑가슴둘레 | 72.23 | 4.06 | 72.80 | 4.36 | -1.587 |
| 허리둘레 | 64.71 | 4.36 | 65.36 | 4.54 | -1.749 |
| 엉덩이둘레 | 90.14 | 4.14 | 90.76 | 3.85 | -1.862 |
| 진동둘레 | 37.44 | 2.75 | 36.79 | 2.14 | 3.007** |
| 윗팔둘레 | 25.72 | 2.23 | 26.09 | 2.24 | -1.969* |
| 손목둘레 | 14.91 | 0.91 | 14.68 | 0.70 | 3.210*** |
| 넓적다리둘레 | 52.79 | 3.78 | 52.84 | 3.63 | -0.165 |
| 장딴지둘레 | 34.88 | 2.23 | 34.23 | 2.50 | 3.564*** |
| 최소발목둘레 | 20.64 | 1.09 | 21.34 | 1.31 | -7.310*** |
| 등길이 | 38.50 | 2.16 | 39.74 | 1.91 | -7.534*** |
| 어깨끝점사이길이 | 38.42 | 2.00 | 37.37 | 2.06 | 6.185*** |
| 뒤품 | 36.44 | 2.20 | 36.67 | 2.17 | -1.279 |
| 앞품 | 31.55 | 1.65 | 31.65 | 1.67 | -0.696 |
| 소매길이 | 53.00 | 2.43 | 54.40 | 2.35 | -7.081*** |
| 앞뒤발위길이 | 67.90 | 3.66 | 67.82 | 3.42 | 0.251 |
| 발길이 | 23.12 | 0.89 | 23.30 | 0.97 | -2.330* |
| 등피하지방두께 | 10.06 | 2.94 | 9.97 | 2.78 | 0.351 |
| 상완피하지방두께 | 11.42 | 3.02 | 10.84 | 2.49 | 2.277** |
| 머리길이 | 22.13 | 1.06 | 22.55 | 1.06 | -4.763*** |
| 몸무게 | 51.94 | 5.50 | 51.89 | 5.62 | 0.111 |

* significant difference(p<0.05) ** significant difference(p<0.01) *** significant difference(p<0.001)

¹⁾ 1992년도 신체 측정집단 ²⁾ 1997년도 신체 측정집단

<표 4> 두 집단간의 이상(理想)치수의 평균, 표준편차와 t-test 결과 및 실제치수

| 신체부위 | A집단 ¹⁾ 의 이상치수 | | B집단 ²⁾ 의 이상치수 | | t 값 | B집단 ²⁾ 의 실제치수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평균 | 표준편차 |
| 키(cm) | 164.75 | 2.69 | 166.46 | 2.93 | -6.226*** | 159.93 | 4.79 |
| 가슴둘레(cm) | 85.26 | 3.84 | 84.41 | 3.76 | 2.205** | 81.87 | 5.30 |
| 허리둘레(cm) | 62.03 | 2.64 | 63.12 | 2.83 | -3.867*** | 65.36 | 4.54 |
| 엉덩이둘레(cm) | 87.41 | 4.38 | 86.97 | 4.28 | 0.966 | 90.75 | 3.85 |
| 몸무게(kg) | 49.57 | 2.85 | 49.16 | 3.09 | 1.355 | 51.89 | 5.62 |

* significant difference(p<0.05) ** significant difference(p<0.01) *** significant difference(p<0.001)

¹⁾ 1992년도 조사집단 ²⁾ 1997조사 신체 측정집단

<표 3> 두 집단 각각의 신체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의 평균, t-test 결과 및 상호간의 상관계수

| 신체부위 | 크기에 대한 인식도 | | | 만족도 | | | 인식도와 만족도간의 상관계수 | |
|--------|-------------------|-------------------|--------|-------------------|-------------------|-----------|-------------------|-------------------|
| | A집단 ¹⁾ | B집단 ²⁾ | t 값 | A집단 ¹⁾ | B집단 ²⁾ | t 값 | A집단 ¹⁾ | B집단 ²⁾ |
| 가슴둘레 | 2.68 | 2.75 | -0.644 | 2.46 | 2.28 | 1.767 | 0.413 | 0.099 |
| 허리둘레 | 3.12 | 3.26 | -1.374 | 2.58 | 2.34 | 2.254* | -0.807 | -0.690 |
| 엉덩이둘레 | 3.76 | 3.66 | 1.124 | 2.12 | 1.96 | 1.618 | -0.574 | -0.503 |
| 어깨너비 | 3.16 | 3.17 | -0.130 | 2.68 | 2.61 | 0.685 | -0.068 | -0.556 |
| 머리크기 | 3.13 | 3.02 | 1.318 | 2.69 | 2.78 | -0.847 | -0.613 | -0.689 |
| 목둘레 | 2.96 | 2.89 | 0.909 | 3.14 | 2.93 | 2.277* | -0.307 | -0.596 |
| 위팔둘레 | 3.31 | 3.43 | -1.101 | 2.51 | 2.25 | 2.528* | -0.600 | -0.692 |
| 아래팔둘레 | 2.74 | 2.88 | -1.494 | 2.96 | 2.71 | 2.680** | -0.437 | -0.559 |
| 손목둘레 | 2.62 | 2.55 | 0.717 | 3.33 | 3.07 | 2.735** | -0.371 | -0.572 |
| 손크기 | 3.16 | 2.99 | 1.482 | 3.10 | 2.99 | 1.005 | -0.054 | -0.161 |
| 넓적다리둘레 | 3.84 | 3.97 | -1.338 | 1.98 | 1.69 | 3.112** | -0.721 | -0.606 |
| 장딴지둘레 | 3.63 | 3.75 | -1.258 | 2.11 | 1.87 | 2.247* | -0.767 | -0.625 |
| 발목둘레 | 2.97 | 3.09 | -1.235 | 2.80 | 2.58 | 2.211* | -0.700 | -0.671 |
| 발크기 | 3.26 | 3.04 | 2.039* | 2.78 | 2.99 | -1.167* | -0.264 | -0.223 |
| 팔길이 | 3.33 | 3.19 | 1.772 | 2.76 | 3.07 | -3.422*** | 0.226 | 0.274 |
| 다리길이 | 3.02 | 2.88 | 1.752 | 2.11 | 2.31 | -1.831 | 0.193 | 0.649 |
| 몸통길이 | 3.13 | 3.04 | 1.148 | 2.50 | 2.39 | 1.266 | 0.059 | 0.203 |
| 몸통둘레 | 3.20 | 3.24 | -0.587 | 2.50 | 2.29 | 2.412* | -0.470 | -0.308 |
| 키 | 3.01 | 2.78 | 2.200* | 2.82 | 2.17 | 5.050*** | 0.742 | 0.697 |
| 몸무게 | 3.42 | 3.41 | 0.082 | 2.33 | 1.98 | 3.369*** | -0.718 | -0.589 |

* significant difference(p<0.05) ** significant difference(p<0.01) *** significant difference(p<0.001)

¹⁾ 1992년도 조사집단 ²⁾ 1997년도 조사집단

<표 5> 두 집단간의 신체의 수척/비만에 대한 인식도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t-test 결과

| 신체부위 | A집단 ¹⁾ | | B집단 ²⁾ | | t 값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전신 | 3.19 | 0.95 | 3.36 | 0.89 | -1.810 |
| 상반신 | 2.85 | 1.12 | 3.14 | 1.07 | -2.594** |
| 하반신 | 3.70 | 1.00 | 3.84 | 0.88 | -1.543 |

** significant difference(p<0.01) ¹⁾ 1992년도 조사집단 ²⁾ 1997조사 신체 측정집단

<표 6> 피험자군의 신체의 수척/비만에 대한 인식의 만족도 평균

| 신체부위 | 신체의 수척/비만에 대한 인식의 만족도 평균 | | | | |
|------|--------------------------|--------|------|---------|------|
| | 말랐다 | 약간 말랐다 | 보통이다 | 약간 똥똥하다 | 똥똥하다 |
| | A집단(1992년도 조사집단) | | | | |
| 전신 | 2.72 | 2.90 | 2.62 | 2.33 | 1.93 |
| 상반신 | 2.81 | 3.07 | 3.03 | 2.53 | 1.89 |
| 하반신 | 3.31 | 3.04 | 2.70 | 2.26 | 1.68 |
| | B집단(1997년도 조사집단) | | | | |
| 전신 | 2.88 | 2.86 | 2.62 | 2.24 | 1.79 |
| 상반신 | 2.99 | 3.03 | 2.77 | 2.40 | 1.95 |
| 하반신 | 3.04 | 2.87 | 2.58 | 2.09 | 1.60 |

4. 요약 및 제언

본 논문은 신체 만족도 및 이상치수에 대한 설문지조사와 신체신체 측정을 통해 신체 크기에 대한

인식도 및 실제치수와 신체 만족도와의 관계를 객관적인 척도로 고찰하여 이상형(理想型)과 실제체형과의 관계에 대하여 파악하고, 1992년도 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시대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이상형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자료는 18세에서 25세의 여성 542명을 대상으로 1997년 4월에서 8월 까지 실시한 신체 측정자료와 설문지 조사자료이며, 시대에 따른 비교자료는 여성 195명을 대상으로 1992년 5월에서 6월까지 실시한 신체 측정자료와 설문지 자료다. 자료는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t-test 분석, 분산분석, 분할표분석 등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키가 크고 몸무게가 가볍고, 사지가 길며 신체가 마른 것에 만족하였는데 엉덩이둘레, 사지, 몸무게에서 그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가슴둘레는 예외로 작은 것과 큰 것모두에 대하여 불만족을 나타내었다. 또한, 실제 신체 측정치보다는 신체에 대한 인식이 신체 만족도와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2.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몸무게에서는 실제 신체 측정치가 작아도 현재보다 가슴둘레, 엉덩이둘레가 더 작고 몸무게가 더 가볍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키와 가슴둘레에서는 실제 신체 측정치가 평균보다 커도 현재보다 더 크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상반신보다는 하반신에 대해 더 마르기를 원하였고 전신에 대한 인식은 하반신에 대한 인식보다 상반신에 대한 인식과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났다.
4. 1997년도 조사집단이 1992년도 조사집단에 비하여 키가 더 크고 몸무게가 더 가벼우며, 사지의 둘레가 더 가늘고 어깨가 좁은 것에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5. 1992년도 조사집단에 비하여, 1997년도 조사집단의 이상형(理想型)은 가슴이 크고 허리가 짙룩한 체형보다는, 좀 더 키가 크고 슬림(slim)한 체형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의복 착용자의 몸에 잘 맞는 의복설계뿐만 아니라 의복 착용을 통해 신체적 외모를 보완하고자 하는 의복 착용자의 심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복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이 대학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 결과를 다른 연령층에 적용시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다른 연령층을 대상으로 신체 만족도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 고애란·김양진,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667-681, 1996.
- 구자명·이명희, 남녀 중학생의 의외만족도와 사회성 및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5), 153-164, 1994.
- 김양진, 강혜원, 의복 및 신체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197-209, 1992.
- 김용숙, 전북지역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만족도와 유행지향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 177-189, 1990.
- 김정숙, 여대생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 디자인 선호간의 상관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이옥연, 비만 학생과 표준체중 학생의 건강 통제위성격과 신체상에 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임숙자, 의복행동과 지능·사회경제적 지위 및 체격과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0(2), 37-50, 1986.
- 정삼호, 성인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의복태도에 관한 연구 -신체적 조건을 중심으로-, 가정문화논의, 2, 61-82, 1988.
- 정재은,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植竹桃子 外 4人, 衣服設計の立場からみた中高年女子の肥りやせの評價, 日本家政學會誌, 40(12), 1089-1095, 1989.
- 植竹桃子, 衣服設計の立場からみた肥りやせの意識, 日本家政學會誌, 39(7), 711-723, 1988.
- Clayton, R., Lennon, S. J. & Larkin, J., Perceived Fashionability of A Garment As Inferred From The Age and Body Type of The Wearer,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5(4), 237-246, 1987.
- Douty, H. I. & Brannon, E. L.(1984), Figure Attractiveness; Male and Female Preference for Female Figur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2), 122-137, 1984.
- Labat, K. L. & Delong, M. R.,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43-48, 1990.
- Soyeon Shim, etc, Body Cathexis, Clothing Attitude, and Their Relations to Clothing and Shopping Behavior Among Male Consumer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35-44, 1991.